

방화현장에 대한 행동분석

The Behavior Analysis on Arson Crime Scene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과학수사계 이 상 준, 김 윤 희
Seoul Metropolitan Police, Lee Sang-Jun, Kim Yun-hee

Abstract

Recently the arson crime is increased remarkably in comparison with different violent crimes and the pace of increase is very quick.

But Social interest about the crime is still slight, it is a fact that the scientific and professional approaches about the crime is insufficient. This problem causes lower arrest rate of the arson crime than the other crime.

So, we need to infer the behavior of a arsonist at the crime scene and analyze the profile and psychological state of the suspect from unique point at the crime scene scientifically and professionally. After arresting the arsonist, we interviewed him and compared a product of interview with our analysis previous to arrest.

초록

최근에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방화범죄는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증가 속도가 현저히 빠르다.

그에 반해 사회적 관심도는 아직 미미하며, 방화범죄의 조사에 있어 과학적·전문적 접근이 부족한 것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방화범죄의 체포율이 다른 범죄에 비해 낮은 것에 일조한다. 이제는 방화현장의 단순한 조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과학화·전문화를 통해 방화범의 행동을 유추하여, 방화현장에서 관찰되는 특이점을 토대로 범인을 추정하고, 범행당시의 심리상태 등을 유추한 것을 검거 후 면담을 통해 밝혀진 내용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I. 서 론

2006년에 발표된 소방방재청의 '2005년도 화재발생 현황 분석' 중 원인별 통계자료에 의하

면 발생순위는 1위 전기(30.8%), 2위 방화(10.3%), 3위 담배(10.2%)로 순위이며, '04년 대비 전기(4.8%), 담배(8.2%)등은 감소한 반면, 방화(0.8%)는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Table 1. 화재 원인별 분석 현황(2005년)

년도별	구분	합	전	담	방	불	불	이	가	난	유	성	기
			기	배	화	타	장	공	스	로	류	냥	타
2005		32,340	9,971 (30.8)	3,289 (10.2)	3,316 (10.3)	2,460 (7.6)	1,120 (3.5)	751 (2.3)	589 (1.8)	369 (1.1)	334 (1.0)	280 (0.9)	9,861 (30.4)
2004		32,737	10,450 (31.9)	3,585 (11.0)	3,291 (10.1)	2,464 (7.5)	1,385 (4.2)	723 (2.2)	698 (2.1)	328 (1.0)	354 (1.1)	307 (0.9)	9,152 (28.0)
전년	건수	△397	△479	△296	25	△4	△265	28	△109	41	△20	△27	709
대비	%	△1.2	△4.6	△8.3	0.8	△0.2	△19.1	3.9	△15.6	12.5	△5.6	△8.8	7.7

<출처 : 소방방재청 : 2006년도 화재분석 통계>

방화는 형법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에서 구분하듯이 행위자체를 범죄로 구분하고 있지만 대부분 방화사건이 다른 강력사건(살인, 강·절도 등)과 경합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최근에 검거되어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 과 '정남규'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범죄의 추세가 방화하는 것을 범행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최근에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방화범죄는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증가 속도가 현저히 빠르다.

그에 반해 사회적 관심도는 아직 미미하며, 방화범죄의 조사에 있어 과학적·전문적 접근이 부족한 것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방화범죄의 체포율이 다른 범죄에 비해 낮은 것에 일조한다. 이제는 방화현장의 단순한 조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과학화·전문화를 통해 방화범의

행동을 유추하는 단계까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미국의 경우는 국립화재보호협회(NFPA: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와 연방수사국(FBI: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2개 연방기관이 국가적 차원에서 방화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수사방향을 설정하는 데 사용됐으며, 수정과 보완을 통해 실무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자료수집과 데이터베이스화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최근에 발생한 방화사건의 현장에서 관찰되는 특이점을 토대로 범인을 추정하고, 범행당시의 심리상태 등을 유추한 것을 검거 후 면담을 통해 밝혀진 내용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단, 이러한 작업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II. 본 론

1. 사건개요



Fig. 화재현장 건물 전경

2005. 11. 26. 18:2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원룸식 오피스텔 4층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연기가 나는 것을 이웃에 거주하는 주민이 발견하여 신고한 것이다.

2. 초기 수사사항

피해자 김성녀(여, 24세)는 강남구 청담동 소재 '앗싸'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자로,

평소 남자들을 자주 집으로 데리고 온다는 인근 주민들의 진술이며, 사건 발생 당일은 피해자가 출근한 상태이다.

3. 현장상황



Fig 2. 화재현장 출입문 및 잠금장치 근접촬영

사건현장의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는 디지털 방식으로 출입문을 닫으면 자동으로 잠기는 구조이다.



Fig 3. 화재현장 중문 및 내부의 연소형상

현장의 연소형상은 현관 출입문 앞의 중문은 닫힌 상태에서 연소되어 내부에서 발생된 그을음 등이 문 틈새로 부착된 형상이며, 중문 안쪽의 원룸 내부 연소형상은 출입구 맞은편에 위치

한 주방의 벽면 및 천장 등이 일부 연소되고, 침대 및 집기 등은 연소되지 않은 상황이며, 내부의 창문 및 출입문 등이 닫혀있어 산소 부족으로 인해 활발하게 연소되지 않은 것으로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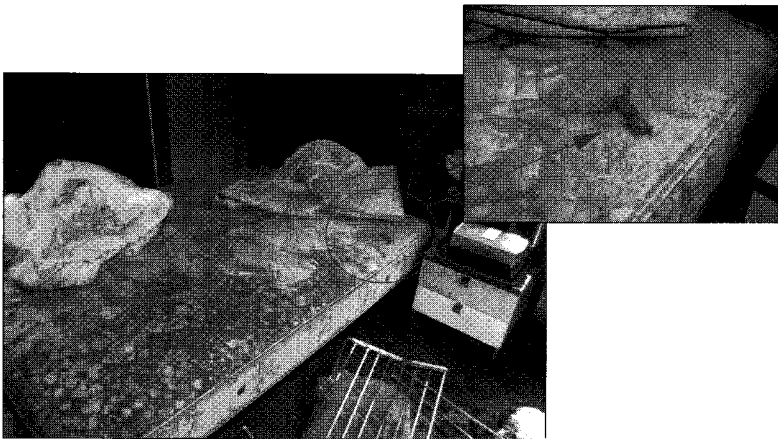


Fig 4. 침대위의 상황

연소되지 않은 침대 위에 1회용 라이터 등이 관찰되며, 침대 옆 서랍장 내부 등은 정리정돈이 된 상태로, 물색 흔적은 관찰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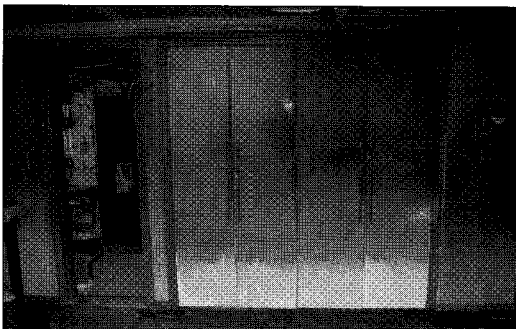


Fig 5. 원룸 내부 장롱의 연소형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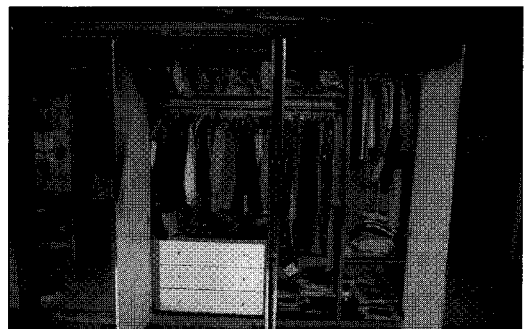


Fig 6. 원룸 내부 장롱 내부의 상황

원룸의 주방 맞은편에 위치한 장롱 외부에는 그을음이 부착된 상태이고, 문짝을 열고 확인한 바, 장롱 안의 의류 등은 피해자가 정리한 상태

그대로라는 진술이고,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물색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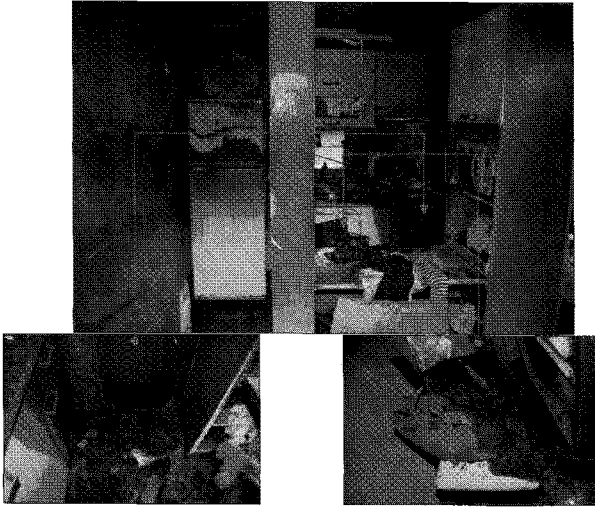


Fig 8. 주방 내부 및 식탁 주변의 연소형상

벽면 등이 소훼된 주방 싱크대 앞 바닥에는 소훼된 메모리폼 베개 등이 관찰되고, 주방 입구의 식탁 위에는 피해자의 의류 등이 관찰되고, 식탁의자 중 싱크대 쪽에 놓여있는 의자 위에 피해자가 평소 들고 다니던 가방이 일부가 소훼된 채 발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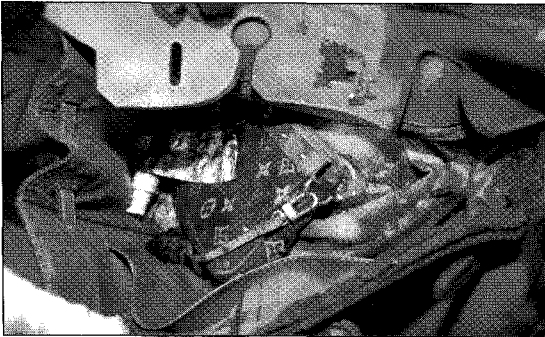


Fig 8. 소훼된 가방 내부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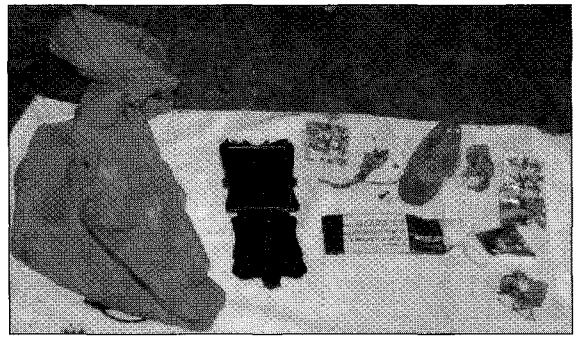


Fig 9. 소훼된 가방의 내용물을 꺼낸 모습

식탁의자 위에서 소훼된 가방 내부에 들어있던 콘돔 다수가 찢겨지고, 러브젤의 내용물이 가방 내부에 쏟아진 상태로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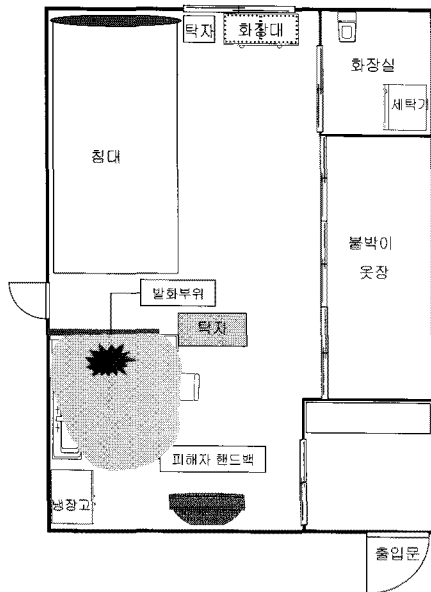
4. 현장조사 및 수사결과

- 화재현장 내부 감식결과 내부 연소형상은 주방의 싱크대 앞 바닥부위에서 발화하여 벽면의 벽지 등을 연소하면서 상승된 열기

에 의해 주방의 천장 등이 일부 소훼된 형상으로 관찰되고, 발화부위에 발화원인으로 작용할 만한 특이점 식별되지 않고, 일부 탄화된 베개 등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현장에 있는 가연물인 베개를 이동시킨

후 인위적으로ライター 등을 이용하여 착화한 것으로 판단함.

- 화재현장 내부의 귀중품 등이 보관되어 있는 서랍장 및 장롱 등에서 물색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절도 등을 목적으로 한 침입에 의한 방화는 배제할 수 있으며,
- 통상적인 방화현장의 경우 가연물이 산재되어 있는 침대 및 장롱 주변 등 연소가 용이한 장소에 착화하는 것이 보통이나, 연소조건이 좋지 않은 부분에 가연물을 이동시켜 착화한 점 및 발화부위와 인접한 부분에서 피해자 가방의 내용물(콘돔 및 러브젤 등)이 훼손된 채 발견되는 점 등으로 보아 피해자와 인과관계가 있는 자에 의한 방화로 볼 수 있음.



화재현장 내부 소헤도

- 발화부위와 인접한 부위에서 관찰되는 가방 내부의 모습 및 현장 상황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자 자신의 남자친구(김대실, 26세)가 의심이 간다는 것으로 위 김대길을

유인 검거하여 범행일체를 자백 받음.

- 이와 같은 사건현장에서 관찰되는 발화부위의 선정 및 가방 내용물의 상태 등을 통해 방화범의 심리상태를 엿볼 수 있듯이, 방화현장에서 관찰되는 특징점 등을 통하여 방화 행위자의 심리 등을 추론한다면 앞으로 발생하는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게 검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다. 위 현장의 피의자인 김대길의 면담을 통한 심리적인 측면에서 사건을 접근하여 본다.

면담 후에

대길은 편의점 밖을 바라보며 소주 1병을 들이킨다. 아까 먹은 것까지 벌써 3병째다.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를 도둑놈 취급해?’ ‘올 때까지 니네 집에 좀 있겠다는데 도둑? 쪽팔리게 차비가 없어서 못 간다는 말은 못 하겠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다. 다시 성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래, 헤어져 줄 테니 내가 시준 옷 다 돌려줘” 그런데 성녀가 정말 아버지를 대동해 외선 비웃으며 옷을 돌려주고 간다. 멍하니 있다 성녀의 친오빠 집으로 가 소란을 피우고 있자니 경찰이 와 저지시킨다.

‘이제는 이판사판이다. 아침이면 집으로 오겠지’ 무작정 성녀네 집 앞에서 기다린다. 지나가던 같은 동네 사는 이웃이 뭐하냐고 묻기에 애인이 오지 않아 집에 못 들어간다고 했다. 그 사람은 안됐다는 듯이 쳐다보며 “내가 열쇠를 잃어버려 가스배관을 타고 집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하며 자기 경험을 얘기해 준다. 이거다 싶어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갔더니 다행히 창이 열려 있다.

성녀와 함께 했던 침대에 누워 과거를 회상한다. 생각해보니 벌써 알고지낸지 7년째다. 후배 동생이었던 그 애가 언제부턴가 여자로 느껴지면서 사귀고 얼마 후 동거를 시작했다. 생각해 보면 내가 가장 인간대접을 받은 시간이자 긴장의 연속이었고 미칠 것 같은 시간이었다.

‘못된 년, 내가 지 15살 때 사창가에서 빼내 주고 룬싸롱에서 일하는 것도 눈감아주고, 그 비싼 명품도 군소리 없이 사줬건만 나한테 어떻게...’

‘하긴 나도 미친놈이지, 그런 년이 헤어지자는 말에 자살시도를 몇 번을 했는가!’ 갑자기 또 숨이 막혀온다. 성녀와 헤어진 뒤 몸이 마비되고 숨이 가빠 병원을 찾아가간 적이 있는데 공황장애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정말 성녀와 헤어진 시간은 너무 견디기 힘들었다. 그런데 이틀 전 갑자기 성녀에게서 다시 만나자고 연락이 온 것이다. 날아갈 듯한 기분에 무엇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런데 다시 또 성녀가 날 버렸다. 화를 주체할 수 없어 침대에서 벌떡 일어선다. 화를 식하고 있는데 식탁 위에 성녀의 가방이 눈에 띈다. 갑자기 그 안이 너무 궁금해져 가방을 연다.

“오아~~ 씨발, 오아~~” 가방 안에 든 건 수 많은 콘돔과 리브젤이다.

“분명 2차는 뛰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이 년이 날 속였어!”

갑자기 눈앞이 까매진다. 콘돔을 손으로 갈갈이 찢고도 화가 풀리지 않는다.

탁자 위에 라이터를 들고 주방 바닥에 있는 베개에 불을 붙인다. 그래도 하는 맘에 일단 불을 껐지만 다시 눈앞이 까매지면서 화가 치솟아 다시 베개에 불을 붙인다. 불을 붙인 후 라이터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키홀더를 들고 현관으로

나온다.

계단을 내려와 편의점을 지나는데 불길에 보인다. 옆에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 “저기 불이 나는데,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한다.

얼마 후 소방차가 오고 소방관이 분주하게 움직인다. 불을 끄는 걸 지켜보다 소방관이 나오는 것을 보고 “얼마나 탔어요?”하고 확인을 하고 나서야 돌아선다.

정신이 없긴 한가보다. 벌써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탔다. 집에 도착하니 탈진상태로 지쳐 쓰러지며 잠이 든다. 일어나보니 해가 중천에 떴다. 성녀에게 전화를 건다.

성녀가 전화에 대고 “뭐야, 이 새끼야~ 꿈계갈 것이지 왜 불은 질러?”하며 따진다. 잠시 멍하니 어제 일을 생각해낸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왠지 성녀에게 미안한 맘이 생겨 성녀의 옷을 산다. 그리고 성녀와 만날 약속을 잡는다. 그런데 왠지 불안감이 엄습해온다.

‘깡패새끼들을 데리고 나올까봐 겁이 난다.’ ‘칼을 사야겠다’ 결심을 한다. 마트에 들어가 과도칼 한 자루를 산다. 칼을 품고 있으니 그래도 맘이 편하다.

약속장소에 성녀가 보이지 않는다. 누군가 다가온다. 위기감이 느껴져 무조건 쫓는다. 성녀가 전화를 해서 커피숍 앞으로 오란다. 가보니 누군가 옆에서 나온다. 경찰이라고 한다.

‘내가 경찰인지 어떻게 알아?’ 무조건 칼을 휘두른다.

경찰의 손에서 피가 난다. 몸싸움을 하다 불잡힌다. 그리고 이런 일을 벌인 죄로 지금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

‘성녀, 이년! 내가 이년만 아니었어도...’

욕이 나온다. 그런데도 성녀가 보고 싶다.

‘면회 안 올러나?’

1. 면담 정리

가. 신상정보

- 나이 신체 : 만 26세, 신장 173Cm
- 특기 : 운동은 대체로 잘함
- 건강상태 : 신체상 문제는 없으나 공황장애로 약물 복용 중
- 흉터·문신 : 왼쪽 손등(중학교 때), 왼쪽 팔 - 트라이벨 (고3때), 왼쪽 엄지손가락 부분, 허벅지
- 병역 : 면제
- 주량 : 보통 1병정도 3~4병까지도 마심
- 혈액형 : A형
- 종교 : 없음
- 음식 : 보신탕 과 뱀탕 빼고는 다 먹음
- 면허 : 1종 보통, 2종 소형

나. 면담 시 태도 및 특징

- 면담 시작부터 울기 시작, 여자 친구인 피해자 얘기를 할 때면 감정이 격해지며 울음
- 말이 매우 빠르며 대화 중 흥분을 잘함
- 면담자에게 자신을 각인시키고 싶어 하고 자신을 이해시키려 노력함

다. 성장과정 및 학력사항

- 고등학교 때 퇴학 → 1학년으로 복학 → 적응하지 못하고 교사가 무시하여 자퇴
- 고등학교 때까지 태권도 선수였음(중학교 - 편급, 고등학교 -프라이드급)
- 고등학교 자퇴 후 중국집, 냉면집 등에서 배달일 함
-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을 좋아했음
- 최근 전망 좋은 마루공사 관련 일을 했으나 여자 친구와의 문제로 그만두게 됨

라. 전과

처분일자	죄명	처분내용	범죄내용
98. 11. 24	폭력행위 등 특수절도	징역6월 집유1년	차를 훔친 동네후배를 오토바이에 태워줘서 공범으로 처벌받음(경찰에 대한 반감 생김)
00. 01. 28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징역8월 집유2년	좋아하던 여자 호주로 유학 가 힘들어서 본드, 벤솔 흡입 - 파출소에서 도망치고 1년 뒤에 자수
00. 11. 15	폭력행위 등	벌금70만원	
02. 03. 22	도교법 (음주운전)	벌금70만원	
04. 08. 11	폭력행위등 현주건조물방화	징역2년6월 집유 4년	전화로 애인이랑 싸우게 되면서 열 받아서 집에 찾아가던 중 슈퍼에서 라이터기름을 보고 충동적으로 애인 집 앞에 불을 지름
04. 09. 17	폭력행위등 야간공동손괴	벌금 30만원	
05. 08. 31	폭력행위등 야간공동상해	벌금100만원	

마. 성격 및 특징 파악

- 피의자 자신이 말하는 성격
 - 다혈질
 - 앉아서 하는 일 못함, 그러나 책 읽는 것은 할 수 있다고 함
- 면담을 통해 드러난 특징
 - 영웅심이 강함, 어느 곳에서도 중심에 서고 싶어 함
 - 경쟁심이 강하여 자존심이 세서 누군가에게 지거나 맞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참지 못함
 - 충동성이 강하고 통제력 부족(공격적인 충동 조절 실패)
 - 배신감, 분노 느낄 때 범행 커짐, 상대와 면식인 경우는 직접적인 공격은 적음
 - 스트레스 상황에 취약하며 극복하기 위해 술을 마심(항상 술을 마심)

바. 가정환경

1) 부(父)

- 59세, 담배 피지 않음
- 군인 → 장사 → 석유파동으로 망해서 리어가 끌고 생선장사 등 함
-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많이 맞음(삼파루로 얼굴 맞는 등 폭력 정도 심함)
- 주위사람들의 평 : 너희 아버지 같이 좋은 사람 없다 → 가정과 사회에서의 이중적 행동
- 피의자 기억에 어머니를 2번 정도 때린 기억이 있음

2) 모(母)

- 57세, 가정주부, 현재 성인 콜라텍에

다닌다고 함

- 피의자 7살 때부터 춤바람이 나서 가정을 등한시 함
- 부친이 때릴 때 적극적으로 말리거나 피의자를 감싸주지 못했음

3) 형제(兄弟)

- 위로 누나 3명 - 출가 하였음

4) 가정환경에 대한 분석

가정과 사회에서 전혀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에 대한 강한 반감과 가정을 등한시하고 자신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어머니에 대한 서운함은 피의자를 가정에서 고립되어 또래와 어울리게 하고 비행을 가볍게 여기게 하는 배경이 된 것으로 판단됨. 가정에서 애정과 존재를 확인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또래에게 선 능력을 인정받고 지휘적 위치에 있고 싶어 했고 이성에게선 애정을 통해 자신의 허전함을 채우고 싶어 했던 것으로 보임. 또한 아버지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정적 평가, 주위 평가)로 인해 반사회성이 높아지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전치되어 타인을 향한 폭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그리고 유흥을 즐기는 어머니로 인해 윤락업소 여성에 대한 친밀감이 반감보다 컸으며, 그런 여성에게 버림받는 것을 어머니와 헤어지는 것으로 동일시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

사. 사건과 피의자 분석

- 강아지 사건
 - 피해자가 강아지를 좋아해 한달 봉급을

털어 바우와우(강아지)를 사 가지고 강아지를 안고 무릎 꿇고 기다렸는데 다른 남자랑 같이 와서 보면서 웃고 지나감
강아지 집에 가져와 기르면서 피해자가 생각나서 계속 때림. 장이 파열되기도 함. 보다 못한 어머니가 다른 집에 주었는데 얼마 안 있다 죽음, 강아지를 그리워 함

→ 피해자에 대한 공격을 강아지에게 전치시킴

피해자에 대한 양가감정이 강아지에게서 똑같이 나타남(동일시 경향 강함)

○ 자 살

손목 그어 자살 시도 4번, 천호대교에서 뛰어내림, 쥐약 농약 등 약물 자살 시도 수차례

→ 피의자는 죽을 운도 없어서 죽지 못한다고. 하나 진짜로 죽을 의도가 있었다기 보다는 순간의 충동에 이끌려 타인의 주위를 끌기 위해 시도한 것으로 보임.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함

○ 공황 장애¹⁾

피해자와 헤어진 스트레스로 인해 몸이 마비되는 증상을 시작으로 공황장애 옴

→ 스트레스 상황에서 취약함

아. 이성 관계와 성적 특징

1) 이성

○ 고2때 좋아하던 여자

- 호주 유학 가서 집에서 본드 흡입에

빠짐

- 그 시기에 친구들과 베짖 흡입하여 유해화학물질법에 의해 처벌

○ 23살 쯤에 만난 여자

- 과거 피의자를 좋아했던 여성으로 결혼해서 애도 낳았는데 남편이 빗만 남기고 도망가서 림싸롱에서 일함.

- 그 여성과 사귀다 다투는 과정에서 2004년 폭력행위 등, 현주건조물방화 위반으로 처벌

○ 현 범행의 피해자

- 후배의 여동생으로 알고 지낸지 7년 되었고 여자로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사귀고 동거

- 15살 때 사창가에서 일하던 거 피의자가 데리고 나옴, 윤락일 계속 함 (당시 림싸롱 일함)

- 술 마시면 피의자를 때림(폭력성 강함), 술 매일 마심

- 유일하게 자신을 인간취급해 준 사람이라고 말함,

-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전화통화의 언행과 소지품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지름

2) 성적 특징

- 피의자는 사귀는 여성에게 집착하며 연인에게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고자 하는 성향이 있음.

- 대부분의 범죄가 사귀던 여성이 촉발요인이 되며 피해자가 되는데, 이는 피의자의 통제력을 상실하게 하고 충동성을

1) 공황장애란 특별한 유발요인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반복되는 공황발작(panic attack)과 다시 이 공황발작이 생길까 두려워하는 예기불안(anticipatory anxiety)을 특징으로 하는 정신과적 질환이다. 공황발작은 대부분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여 급격히 고조되는 격심한 상태는 불쾌감과 더불어 심계항진, 질식감, 어지러움, 이대로 미치지거나 죽을 것 같은 공포와 신체 및 인지적 증상이 나타나는 극심한 불안상태다.

극대화시키는 존재가 자신이 가장 애정을 느끼고 확인받고자 하는 애인이기 때문이다.

- 여자 친구와 대면했을 때는 공격적이지 못하고 전화통화를 할 때 또는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즉 비대면적일 때 공격성향이 드러나므로 직접적인 공격이 아닌 간접적인 공격 방법을 취함.

자. 면담을 통해 나타난 피의자의 특성 종합 면담 결과 감대길은 분노를 느끼거나 좌절을 경험할 때 공격성을 드러내는 자로 알코올과 병합하여 공격성의 정도가 강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발작적이고 폭발적인 행동이 하찮은 사회 심리적 자극에 의해서 일어나고 심한 폭력사태나 재산의 파괴를 야기하는 공격적인 충동 조절에 실패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자극이 자신과 사귀는 여성이 되었을 경우는 공격성이 극대화되거나 이러한 공격이 직접적 대상보다는 간접적인 대상으로 표출된다. 그러한 피의자의 특성이 방화의 특성과 유사하기에 방화의 형태로 공격성이 표출된다고 할 수 있다. 분노나 배신감의 대상이 여성일 경우 대상자의 전치현상이 일어나므로 비면식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며 더 큰 방화를 저지를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애정에 대한 동경은 있으나 가족에게선 언지 못하였기에 상대적으로 이성에게서 찾으려 하나 매번 집착으로 인하여 좌절당하는 경험이 피의자를 공격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 동기를 통한 방화범의 유형

방화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각기 다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 방화는 불이라는 하나의 형태로 보이지만 그 이면엔 다양한 동기가 존재한다. 그러한 동기로 방화범을 나누는 과정은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그러한 유형의 구분은 수사방향을 잡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방화동기와 방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기대이익에 관해서는 일부만이 알려져 있으며, 유형 구분이 절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 수사상황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유형구분은 방화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점에 의의가 있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수사기관에 의한 유형구분은 미국 FBI식 구분이라 할 수 있는데, 미국의 FBI에서는 2,611건의 방화를 저지른 83명의 중방화범에 대한 조사에 기초하여 방화범의 유형을 크게 손괴방화범, 보복방화범, 흥분방화범, 범죄은닉목적의 방화범, 이익방화범, 혼합형 그리고 정신이상 방화범(또는 극단주의자)의 7가지로 나누어 활용하고 있다.

첫째, 손괴방화범(vandalism arsonist)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상시키기 위해 불을 지르는 사람들을 말한다. 주로 청소년들이 장난삼아 불을 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나이대가 상대적으로 어린 경향을 보이고 있다), 주로 학교시설이나 버려진 건물, 농작물, 방치된 물건 등 손쉽게 방화할 수 있는 물건이나 장소가 그 대상이 된다. FBI연구에 의하면, 전체 방화범의 7.3%가 이 유형에 속한다고 한다. 이들은 대부분 걸어 다니면서 불을 지르며, 보통 자신의 집으로부터 0.8km에서 1.6km 정도 안에서 익숙한 곳을 방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둘째, 흥분방화범(excitement arsonist)은 스릴을 즐기거나, 인정을 받거나 또는 주의를 끌기 위해 방화를 하는 사람들로서, 전체의 30.5% 정도가 이 유형에 속한다고 한다. 이 중 스릴방화범은 불을 지르는 데서 그리고 불이 난 후의 급박한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흥분을 갈구하는 사람들로서, 본질적으로 성적인 경향을 띠 수 있다. 반면 인정을 받으려는 방화범들은 기본적으로 불을 신고하거나, 다른 생명을 구하거나 불을 끄는 데서 공을 쌓으려는 영웅주의적 유형이며, 주의를 끌려는 방화범은 자신이 중요한 사람으로 느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흥분방화범은 대체로 시간에 흘러감에 따라 점점 더 큰 대상에 방화를 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보복방화범(revenge arsonist)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불쾌한 것에 대한 복수로서 불을 지르는 사람들로서, 전체의 41.4% 정도가 이 유형에 속한다고 한다. 이런 보복은 대상에 따라 더 세분화할 수 있으며, 크게 개인적인 보복(14.7%), 집단적 보복(5.9%), 제도적 보복(20.6%), 그리고 사회적 보복(58.8%)으로 구분하고 있다.

넷째, 범죄은닉목적의 방화범(crime concealment arsonist)은 다른 범죄를 저지른 자가 그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해 범죄를 행한 장소, 차량, 사체, 증거물이 있는 사무실 또는 증거가 되는 서류, 장부 등에 방화를 하는 사람들이다. 주로 횡령, 침입절도, 또는 살인범죄를 은닉하기 위한 이차적인 행동으로서 나타나며, 전체 방화범의 4.8%가 여기에 속한다고 한다.

다섯째, 이익방화범(profit arsonist)은 주로 금전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방화를 하는 사람들로서, 주로 보험이나 업무상의 이유로 방화를 하는 사람들로서, 전체의 4.8% 정도를 차지한다고 한다. 주로 돈이 궁한 상태에 있는 자가 거액의 보험에 최근 또는 중복 가입되어 있는 경우 의심해 볼 수 있다.

여섯째, 정신이상 방화범(mentally disordered arsonist)은 감정적 또는 심리적 문제로 고통 받는 사람들로서, 전체의 6.1% 정도를 차지한다고 한다.

일곱째, 혼합형 방화범은 다양한 범죄의 동기에 의해 방화를 하는 사람들을 말하며, 전체의 6.1% 정도라고 한다.

Table 2. 유형별 방화범의 사회적 / 행동적 특성

특성	손괴 방화범	흥분 방화범	보복 방화범	범죄은닉목적	이익 방화범
나이	연소자	연소자	성인	성인	성인
사회적 계층	중류층 이하	중류층	하류층	하류층	노동자 층
범행 시간대	오후	오후, 저녁	오후, 저녁 이른 아침	저녁, 이른 아침	저녁, 아침
범행 요일	평일	다양	주말	다양	평일
동거인	부모	독거	독거	독거	독거

특 성	손괴 방화범	홍분 방화범	보복 방화범	죄의식 목적	이익 방화범
알코올 또는 약물사용	X	X	O	O	O
범행장소의 근접성	1마일 이내	1마일 이내	1마일 이내	1마일 이상	1마일 이상
단독 범행	X	O	O	X	X
범행장소 머무름	O	O	X	X	X
성적 동기	X	X	X	X	X
교육 수준	6~8학년	10학년	10학년 이상	고등학교 이상	고등학교 이상
직업	X	X	O	O	X
체포 전과	연소자	O	O	O	O
결혼 유무	미혼	미혼	미혼	미혼	미혼

출처 : Douglas, J. Burgess et al.(1992) Crime Classification Manual and Sapp et al.

3. 보복방화범의 피의자

피의자 김대길은 보복방화범 중 개인적 보복의 방화범이라 볼 수 있다. 보복방화범들은 현실적인 또는 상상에 의한 이미지화된 상처에 대한 복수를 달성하기 위해 불을 지른다. 김대길은 피해자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불을 지른 것이다. 즉, 방화를 복수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다. 보복방화범들은 다른 방화범들과는 다소 다르며, 특히 연쇄 방화범으로 불리어 지는 사람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의 대상은 정해져 있고 1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상이 일정하게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사회적 보복 경향이 강한 경우는 단정할 수는 없다. 보복방화범은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믿는 어떤 사람과 연결된 집, 회사 또는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 이런 공격은 개인, 사업(전 고용주의 직장), 정부 시설 또는 라이벌 갱과 같은 집단을 향하는 것이다. 김대길의 경우는 자신의 복수 대상인 애인의 집에 불을

질렀다. 그리고 예전에도 자신을 배신했다고 믿는 전 애인의 집문 앞에 불을 질러 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 보복방화범은 대개 비교적 낮은 사회경제적 계층의 배경을 지니고 있으며, 손괴방화범 또는 홍분방화범보다는 더 높은 학력수준을 지니고 있다는 통계가 있으며, 대개는 10년의 정규 학교 교육과정(미국의 경우) 이상을 마친다고 한다. 김대길의 경우도 경제적으로 가정 형편이 좋지 못했다. 학력에 있어선 정규과정을 다 마치지 못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했다.

여성이 방화범인 경우는 보복방화범인 경향이 높다. 복수를 위해 방화를 하는 여성은 전 애인 또는 남편의 물건(그 사람의 옷 또는 소유물)에 불을 지른다. 반면 남성의 경우 그들의 전형적인 타겟은 거주지역 또는 일하는 장소인 경우가 많다.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방화범위가 더 넓은 편이다.

복수형 방화범은 종종 주말에, 오후, 저녁, 또는 이른 아침 시간대에 범행을 저지른다. 대개는 그들의 거주지 1마일 반경 안의 지역에서 범죄

를 저지른다. 그들은 범죄 현장에 잘 머물지 않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놓은 불로부터 스스로를 떨어져 있게 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좀처럼 범죄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김대길의 경우 불을 지르고 그 주변에 머물며 119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소훼되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김대길의 경우 복수의 맘과 피해자를 사랑하는 맘의 양가감정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지만 걱정이 되어 119신고를 해달라고 하고 소방과정을 지켜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복 방화범은 손괴방화범 또는 흥분방화범과는 다르게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그들의 억압을 줄이기 위해 종종 알코올을 섭취한다. 김대길의 경우 방화 결심 전에 알코올을 마시긴 했지만 분노와 병합하여 억압이 느슨해지게 하는 역할을 했으며, 과거의 방화도 알코올을 섭취한 후에 이루어졌으며, 대부분의 전과가 알코올 섭취와 병합되어 있다.

III. 결 론

지금까지 방화현장에 드러난 특이점 등을 통해 사건을 유추해 보고 검거 후 면담을 통해 사건을 확인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외국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한 방화범의 유형을 통해 피의자 김대길을 평가해 보았다. 살펴보았듯이 김대길은 보복방화범에 해당되고 유사한 특성을 드러냈다. 하지만 차이점을 보이는 점도 적지 않게 발견되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감정, 성장 환경 등 개인적인 차이에서 비롯되는 점도 있지만, 외국데이터베이스에 의한 유형구분이 외국문화와 환경에 토대를 두고 형성되었다는 점도 배

제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외국의 기존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기초로써 활용은 할 수 있지만 있는 그대로 도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자료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화된 자료를 수사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화재현장 감식을 현장조사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 나타난 특성 등을 분석하여 사건발생 초기 수사 방향 설정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국내문헌

1. 박철현

2004,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이용한 연쇄방화범의 거주지 추정 : 동래연쇄방화사건의 사례」, 형사정책, 2004.

2. 최인섭·진수연

1993, 「방화범죄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 외국문헌

1. Brantingham, P. L. and P. J. Brantingham

1981, "Notes on the Geometry of Crime," P. L. Brantingham and P. J. Brantingham(Eds.), *Environmental Criminology*, Beverly Hills, CA : Sage Publication, 1981.

2. Douglas, John E., Ann W. Burgess, Allen

G. Burgess, and Robert K. Ressler 1992, *Crime Classification Manual*, San Francisco : Jossey-Bass Publishers, 1992.

3. Holmes, Ronald M. and Stephen T. Holmes
1996, *Profiling Violent Crimes : An Investigative Tool*, second Edition, Thousand Oaks : Sage Publications, 1996.
4. Rossmo, D. Kim, 1995a, "Place, Space, and Police Investigations : Hunting Serial Violent Criminals," John E. Eck and David Weisburd(Eds.), *Crime and Place, (Crime Prevention Studies, Vol. 4) Monsey*, New York : Criminal Justice Press, 1995a.
5. Rossmo, D. Kim, 2000, *Geographic Profiling*, Boca Raton : CRC Press, 2000.
6. Sapp, A., Huff, T, Gary. G, Icove. D, & Horbert. P : A report of essential findings from a study of serial arsonists, Unpublished manuscript